

장흥군 장동면 “사랑은 김치를 심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경로당 등에 전달

장흥군 장동면(면장 김광재)에서는 지난 1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사랑가득 행복가득 김장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장동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금) 회장 집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장동면 직원들과 각 마을부녀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장배추 버무리기 및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장김치 이외에도 떡국, 소불고기도 함께 준비되었다.

직원 및 새마을부녀회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는 이번 김장김치 80박스는 김장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경로당 25개소 및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전달되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직접 김장을 담근 김광재 장동면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김장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과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

뜻한 정을 전달하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내 일처럼 동참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동막영농조합법인, 곡성군에 기부물품 전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유기농 쌀·현금 등 지정기탁

곡성군은 동막영농조합(대표 유장수)로부터 유기농 쌀(10kg 100포)과 현금(300만원)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동막영농조합은 2019년 전남 친환경농업인 한마음 대회에서 고소득쌀 생산부문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곡성군의 대표적인 영농조합으로 매년 기부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에도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직접 농사지는 쌀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

곡성군은 기탁 받은 현금과 현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웃과 함께하려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주 광산구, ‘무한상상 리빙랩’ 결과발표회 개최

굼다리 안전·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해결책 선보여



16일 광주 광산구와 광주시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구청에서 주민·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해결단’과 ‘무한상상 리빙랩’의 결과발표회를 가졌다.

리빙랩(Living Lab)은 사

용자 중심의 생활 문제 발견·해결 활동으로 사회 모든 문제를 실현대상, 다양한 삶의 현장을 실험실 삼아 진행하는 사회혁신 기법.

광산구 문제해결단은 10~11월 7번의 워크숍으로 송정동

‘술머리 안전마을 굼다리 안전문제’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결과발표회는 해결책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문제해결단은 굼다리 안전을 위해 굼다리 구부러진 각도 검토, 통행 안전 반사경과 폐쇄회로 설치 최적 위치 선정, 축소모형 제작 등을 실시했다. 나아가 폐쇄회로TV를 외부 모니터에 연결해 굼다리 내부 안전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주차단속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주차문제해법은, 하남공단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전용표시를 추가해 비장애인에게 일반 주차구역 주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 건의를 받아들인 광산구는 장애인 주차 전용표시 추가 설치를 7일 마쳤다.

임형택 기자

아시아나항공, 바자회 수익금 장애인 단체 기부

아시아나항공이 사내 바자회를 통해 걷힌 수익금을 강서구내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1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조영석 아시아나항공 커뮤니케이션부 담당 상무는 이날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를 방문해 ‘2019 사랑나누기 캠페인’ 수익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단체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5년부터 ‘사랑나누기 캠페인’ 수익금을 지원해 온 곳으로 지원금은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부터 실시해 온 ‘사랑나누기 캠페인’은 통해 임직원들로부터 의류, 잡화, 도서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 받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뉴스1



장애인고용공단, ‘저탄소생활 모범기관’ 선정

현판 제막식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지난 12일 공단 입구에서 조종란 이사장을 비롯해 노조위원장, 직원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생활 모범기관’ 선정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저탄소생활 모범기관’은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저탄소생활 경연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 구현을 선도한 기

관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다.

특히, 이날 행사엔 공단의 안전·보건·환경(Safety, Healthy, Environment) 경영방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공단 노조도 참여하여 노사가 함께 전사적인 사회적 가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저탄소생활 모범기관 선정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